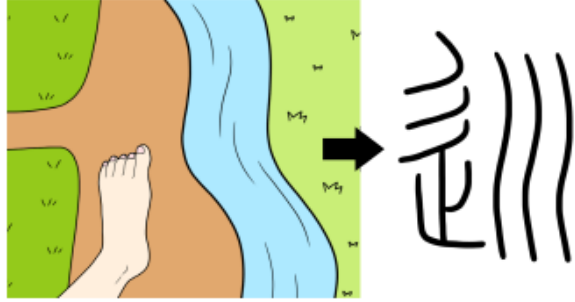


3(2) - 251	<div>회의문자 ①</div> <div></div>								
旬	旬자는 ‘열흘’이나 ‘열 번’, ‘십 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旬자는 日(해 일)자와 勹(쌀 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旬자를 보면 둥근 획과 十(열 십)자가 함께 그려져 있었다. 고대 중국에서는 천간(天干)이라 하여, 10가지의 때를 갑(甲), 을(乙), 병(丙), 정(丁).....과 같은 순서로 말했다. 고대에는 날짜를 10일 단위로 날짜를 끊어서 말했기 때문에 旬자는 천간이 한 바퀴가 돌고 난 후에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10일을 뜻했었다. 금문에서는 여기에 日자가 더해지게 되면서 旬자가 날과 관련된 글자라는 것을 뜻하게 되었다.								
열흘 순	<table><tr><td></td><td></td><td></td><td></td></tr><tr><td>갑골문</td><td>금문</td><td>소전</td><td>해서</td></tr></tabl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252	<div>회의문자 ①</div> <div></div>								
瞬	瞬자는 ‘(눈을)깜짝이다’나 ‘잠깐’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瞬자는 目(눈 목)자와 舜(순임금 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舜자는 어그러진 발과 손을 함께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瞬자는 소전까지만 하더라도 瞬(깜짝일 순)자가 쓰였었다. 그러나 해서에서부터는 瞬자가 ‘깜짝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瞬자는 본래 눈을 ‘깜짝이다’라는 뜻을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러나 눈을 깜빡거리는 찰나의 순간이라는 뜻이 확대되면서 지금은 ‘잠깐’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눈깜짝일 순	<table><tr><td></td><td></td></tr><tr><td>소전</td><td>해서</td></tr></table>			소전	해서				
									
소전	해서								

3(2)  
-  
253

회의문자①



巡

돌[廻]/순  
행할 순

巡자는 '돌다', '순행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巡자는 川(내 천)자와 辵(쉬엄쉬엄 갈 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辵자는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쉬엄쉬엄 가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쉬엄쉬엄 가다'라는 뜻을 가진 辵자에 川(물이 흘러가듯이 천천히 '순행하다'라는 뜻이다. 巡자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순찰(巡察)이라든지 순방(巡訪)과 같이 어느 지역을 정기적으로 다녀온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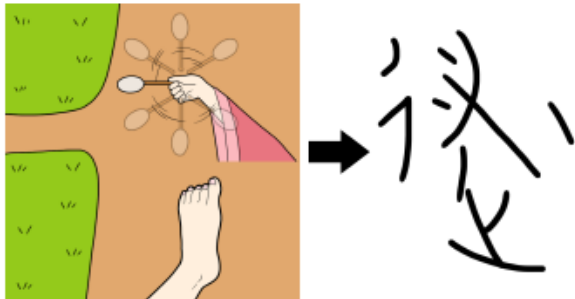
소전

巡

해서

3(2)  
-  
254

회의문자①



述

펼 술

述자는 '퍼다'나 '서술하다', '설명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述자는 辵(쉬엄쉬엄 갈 착)자와 聿(차조 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聿자는 본래 又(또 우)자 주위에 점을 찍어 '손재주'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聿자는 손을 빠르게 움직이며 손재주를 부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術(피 술)자도 여기서 파생된 글자였다. 다만 術자가 손재주를 부리는 모습에서 '피'나 '계략'을 뜻하게 되었다면 述자는 단순히 재주를 펼쳐 보이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述자에서 말하는 '퍼다'나 '설명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재주를 대중 앞에서 펼쳐 보임을 뜻하는 것이다.

述

금문

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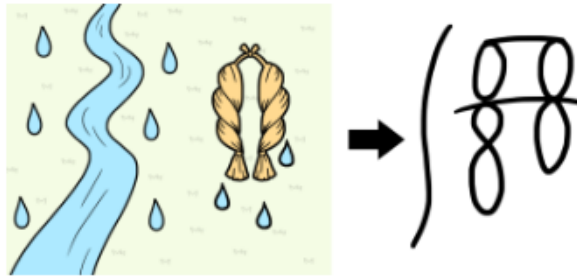
소전

述

해서

3(2)  
-  
255

회의문자①



濕

젖을 습

濕자는 '젖다', '축축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濕자는 水(물 수)자와 𣎵(드러날 현)자 결합한 모습이다. 𣎵자는 햇빛(日)에 실(絲)을 말리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드러나다'라는 뜻이 있다. 그런데 갑골문에서는 명주실과 水자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축축한 명주실을 표현한 것이다. 소전에서는 日자가 더해지면서 젖은 명주실을 햇볕에 말리는 모습을 표현한 濕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濕

갑골문

濕

금문

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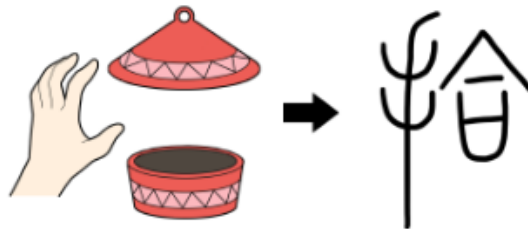
소전

濕

해서

3(2)  
-  
256

회의문자①



拾

주울 습  
| 열 습

拾자는 '줍다', '습득하다', '모으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拾자는 手(손 수)자와 습(합할 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습자는 뚜껑이 있는 그릇을 그린 것으로 '합하다'나 '모으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拾자는 이렇게 '모으다'라는 뜻을 가진 습자에 手자를 결합한 것으로 손으로 무언가를 주워 모온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拾자는 물건을 주워 모온다는 뜻 외에도 어떠한 상황이나 혼란을 정리한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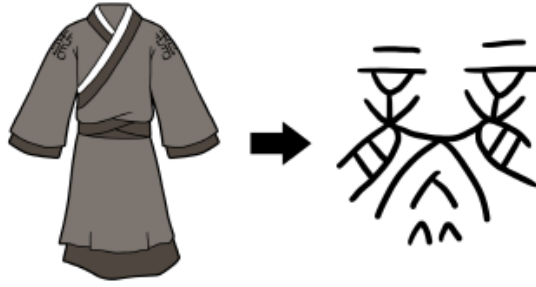
소전

拾

해서

3(2)  
-  
257

회의문자①



襲

엄습할  
습

襲자는 '엄습하다'나 '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襲자는 衣(옷 의)자와 龍(용 룡)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금문에 나온襲자를 보면 衣자 양옆에 龍자가 𪛗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옷의 양쪽 어깨 부분에 용무늬가 그려져 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고대에는 죽은 사람에게 이러한 옷을 입혔다.襲자에 '엄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도襲자가 본래는 수의를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襲자의 본래 의미는 '(죽음이)엄습했다'이다. 후에 뜻이 확대되면서 예고 없이 닥친다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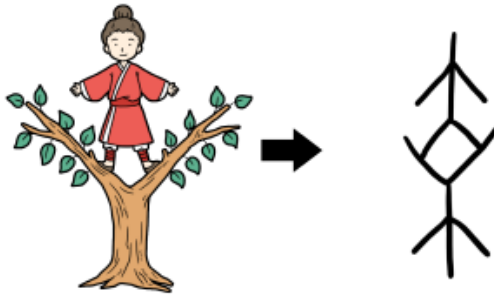
소전



해서

3(2)  
-  
258

회의문자①



乘

탈 승

乘자는 '타다'나 '오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乘자는 禾(벼 화)자와 北(북녘 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乘자의 갑골문을 보면 본래는 木(나무 목)자와 大(큰 대)자가 결합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갑골문에 나온 乘자를 보면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있는 𣎵 모습이였다. 금문에서는 大자에 발이 엮갈려 있는 모습을 그린 𣎵(어그려질 천)자가 더해지게 되었다. 이것이 후에 北자로 바뀌게 되면서 지금은 乘자가 '타다'나 '오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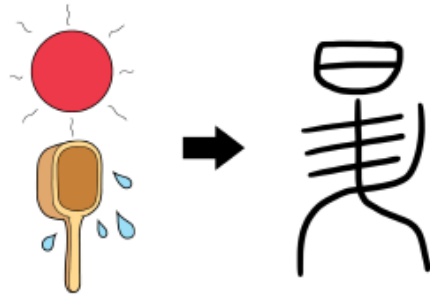
소전



해서

3(2)  
-  
259

회의문자①



昇

오를 승

昇자는 '(해가)오르다'나 '(지위가)오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昇자는 日(해 일)자와 升(되 승)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升자는 국자를 그린 것으로 '되'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모양자로 응용되었다. 升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양손(升: 받들 공)으로 무언가를 떠받치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여기에 태양을 뜻하는 日자가 더해진 昇자는 마치 태양을 위로 떠받쳐 올리는 듯한 모습이다.

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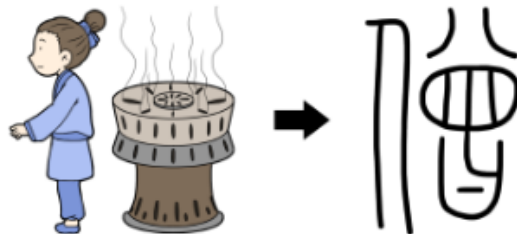
소전

昇

해서

3(2)  
-  
260

형성문자①



僧

중 승

僧자는 '스님'이나 '승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僧자는 본래 범어(梵語)라고 하는 고대인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말이다. 불교가 탄생한 고대인도에서는 법사를 '심할라드비파(Simhaladvipa)'라고 불렀다. 이 말이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한자로 '승가라(僧伽羅)'라고 바뀌었는데, 이를 줄여서 僧이라고 했다. 僧자는 범어에서 유래한 글자이고 속세를 떠나신 스님을 뜻하는 글자로 쓰이고 있다.

僧

소전

僧

해서